



내일의 챔피언들

# TOMORROW'S CHAMPIONS

투어에서 활동할 미래의 스타들을 육성하는 일이 갈수록 대규모 산업이 되고 있다. 주니어 골퍼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세 곳을 찾았다. 글\_주광탄(Ju Kwang Tan) / 정리\_고형승

프로 골퍼가 되겠다는 꿈을 실천하는 건 매우 어린 나이부터 시작된다. 운동선수로 성공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는 많은 아이와 부모에게는 전혀 놀랄 일이 아니겠지만, 이젠 모든 노력을 혼자 기울일 필요가 없다. 그 꿈이 투어 프로든, 아니면 단순히 골프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든, 유망한 골퍼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립된 회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뉴질랜드 인스티튜트 오브골프

그중에서도 '인스티튜트 오브골프(Institute of Golf)'만큼 확실하게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다. 뉴질랜드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세계 랭킹 1위인 리디아 고를 배출했다. "리디아에 대해서는 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다. 리디아는 예나 지금이나 훌륭한 골퍼이며, 뭉뚱이도 뛰어난다." 인스티튜트 오브골프의 CEO인 크레이그 딕슨(Craig Dixon)은 말했다. "리디아는 어린 나이에 성공을

거뒀고, 코치인 가이 윌슨(Guy Wilson)과 나눈 그 아이가 열두 살 때 아주 특별한 재목이라는 걸 알아봤다." 그는 말을 이었다. "리디아의 부모는 여섯 살 때 가이를 처음 찾아왔고, 가이는 그녀가 열여섯 살이 될 때까지 지도했다. 열두 살부터 열여섯 살까지는 스윙을 미세하게 조절할 때 나도 대표 코치인 가이를 도와서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최근의 주니어 골퍼 육성 프로그램이 대부분 그렇듯이 인스티튜트 오브골프도

단지 스윙 레슨만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통해 주니어 선수들이 목표에 도달하는 분명한 경로를 제시한다." 딕슨은 말했다. "일단 계획이 수립되면 주니어 자신은 물론 부모나 그 밖의 관계 당사자들과 함께 힘을 합쳐 계획을 실행한다." 인스티튜트 오브골프가 리디아 고에게 지원한 노력과 그에 따른 찬란한 결과는 그 계획이 성공적이었음을 입증한다. "가이는 리디아가 탄탄한 기본과 뛰어난 쇼트 게임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와 동시에 리디아가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딕슨은 덧붙였다. "리디아가 열두 살이 된 후에 우리는 기술을 보강한 레슨으로 그녀가 더 강한 체력을 통해 동작을 익힐 수 있게 해줄 단계로 넘어갔다. 그리고 물리치료와 체력 단련 그리고 멘탈 레슨 등을 정기적인 주간 프로그램에 포함했다. 리디아와 함께 보낸 시간은 굉장한 경험이었다. 그녀는 열의가 대단했고 가족의 지원도 놀라웠다. 그녀를 지도하고 그녀의 성공을 지켜보면서 우리 모두는 매우 뿌듯함을 느꼈다." 인스티튜트 오브골프는 학생이 세계 랭킹 1 위이든, 아니면 그저 장래성을 지닌 평범한 골퍼든 똑같은 접근법을 적용한다. 이곳의 레슨은 포커스와 시간 그리고 콘텐츠, 이 세 가지 요소를 기본으로 한다. 포커스는 성실한 연습과 각 샷에 집중하는 것을 요구하며, 시간은 실력의 향상과 계획의 실행에 투입하는 엄청난 양의 시간을 뜻하고, 콘텐츠는

